

Noblesse oblige



글. 조의현
산본연구소 대표/한화합이사

[지난호이어 계속] 화장실 관련 글의 소 제목치고는 좀 과한(?)느낌이 없는 것은 아니나 고급스럽고 고풍스러운 두 곳을 방문하면서 가졌던 기대가 기대이상 만족스러웠고, 그들 나름대로는 당연시하게 생각하고 있는 느낌이었기에 그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3. Noblesse oblige

1) 게이리 본가

먼저 간 곳은 사보로 명산 게 요리로 유명한 “카니 본가”라는 게이리 전문 음식점이었다. 위치도 시내 중심부, 6층 건물이 운통 게이리만 판매하는 음식점이다.

건물에 들어서자 원목을 이용한 내부장식이 우리를 압도했다. 소형 엘리베이터를 타고 예약된 호실로 안내되었다. 기모노를 입은 안내양의 친절함, 오랜만에 먹어보는 게이리의 신선함과 그 맛, 뿐만 아니라 미리 알아본 가격대, 모두가 경이로울 정도였다.

화장실이야 보통 수준이겠지 하고 카메라를 들고 예의 하던 대로 화장실로 갔다. 나무(원목)로 장식된 입구, 고풍스러운 장식의 세면기와 소변기, 과감하게 사용한 칼라 타일의 디자인, 대변기 부스의 편안한 느낌, 소변기에는 얼음까지 넣어서 냄새의 제거 및 이용에 기분좋음까지 더해주고 있었다. 박물관에 옛 전통화장실을 전시하고 있는 느낌이었다.

음식점을 나오면서 일행 모두들 이렇게들 말했다. “좀 비싸긴 해도 와보기를 참 잘했다.”

물론 맛과 신선도가 일품이기에 오랜 기간 게이리 하나만으로 이러한 명성을 이어왔겠지만, 걸맞게 꾸며지고 관리되는 화장실이 있었으므로 “카니 본가”의 존재는 더욱 그 빛을 발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옛 일본의 부호 아오야마씨가 1918년에 시작, 6년에 걸쳐 완공한 초호화 건축물로 오늘날은 오타루시의 역사 건축물로 지정되어, 미술관으로 일반에 공개되고 있는 건축물이다.

건축비가 당시 신주쿠 이세탄 백화점이 50만엔 정도였는데 이 건물 완공에 31만엔이 들었다니 그 화려함과 고급스러움은 가히 짐작 할 만하다고 하겠다. 중요한 것은 이 별저 내에 있는 화장실이다.

지금은 사용을 못하고 전시만 하고 있으나 고급 재질로 만들어서 보존되고 있는 세면기, 소변기, 대변기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 당시 건물주의 기품과 모습이 처음 보는 관광객에도 전해져 오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단순한 부의 축적만이 아니라 문화를 사랑하고 아끼는 그리고 그것을 후세에 전하여 역사의 교훈장으로 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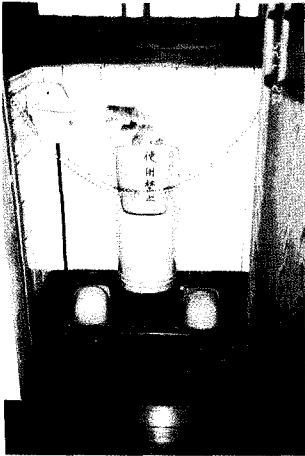


사진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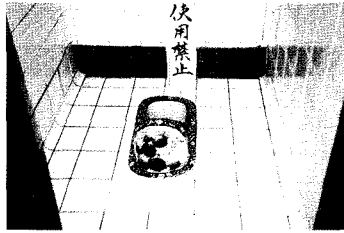


사진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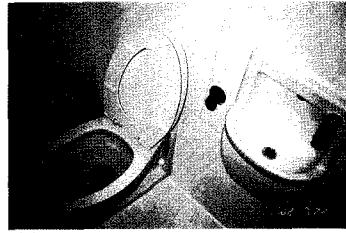


사진3

사진1·2 - 지금은 전사만 하고 있는 소변·대변기

사진3 - 좁은 곳에서

사진4 - 게이오리 전문점내의 화장실 소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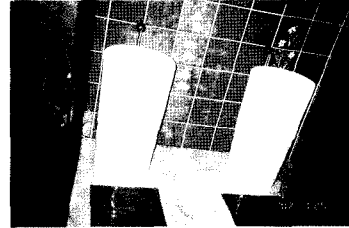


사진4

공하고 있는 그들의 민족혼에 강한 질투감 같은 것을 느끼기까지 하는 문화 유산이었다.

3) 좁은 곳은 좁은 대로.

일본이라고 해서 모든 곳의 화장실이 고급스럽게 꾸며진 것만은 아니다.

영세 음식점의 화장실, 운동 시설의 소규모 휴게실 화장실 등은 장소가 협소하기가 우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이다. 그런 곳은 그런 곳대로 대·소변기, 세면기 등은 소형의 것으로 사용하고, 심지어 대변기 물탱크의 물을 이용하여 손을 씻을 수 있는 겸용 대변기도 준비되어 있었다. 어떠한 경우든지 관리는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필자의 경우 과거 위생도기 제조 경험이 있었는데 상기와 같은 변기를 만들어 출시를 하였으나 소비자의 반응이 별로여서 생산을 중단했던 일이 기억이 나기도 한다.

3. 맺으며

일본의 좋은 면만이 일방적으로 소개된 느낌이 있기는 하지만, 어찌되었건 우리나라보다는 화장실 분야에서도 선진국임은 틀림없는 사실이기에 좋은 것은 배워보자는 뜻에서 글을 쓰게 된 것이다.

언뜻 보면 누구나 알고 있는 평범함 내용들이고, 조금씩 변하여 가는 그렇고 그런 류의 이야기 아니냐고 폄하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본은 조금씩 조금씩 기기류의 “하드” 부분은 물론, 유지관리에 관한 “소프트”적인 측면도 좀더 실질적이고 내용적인 면에서 우리보다 한발짝씩 앞서서 변화·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시행착오도 적으며 비용도 줄이면서 쉽게 따라잡을 수 있는 장점도 있을 수 있겠으나, 앞서가는 사람만이 맛 볼 수 있는 앞서감의 맛은 영원히 느끼지 못할지도 모를 것이다.

2002 FIFA 월드컵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화장실분야도 장족의 발전을 하였다고 하겠다.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잘 꾸며진 화장실이 철저하고 지속적인 유지관리와, 이용자의 이용매너 향상으로 곱게 오래도록 잘 보존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더욱 간절해진다.